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3년 10월 1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영환, 차장 박충원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기초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점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세계경제지표

		22.4/4	23.1/4	2/4	3/4	23.6월	7월	8월	9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6	2.2	2.1	..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0.2	1.1	0.1	1.7	0.2	0.6	0.8	0.7
	산업생산 ¹⁾ (전기비, %)	-0.6	-0.1	0.2	0.6	-0.5	1.0	0.0	0.3
	ISM제조업 ²⁾ (기준=50)	49.1	47.1	46.7	47.7	46.0	46.4	47.6	49.0
	실업률 ¹⁾ (%)	3.6	3.5	3.5	3.7	3.6	3.5	3.8	3.8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94.8	96.6	66.7	66.3	10.5	23.6	22.7	33.6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0.2	0.3	0.5	..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1.1	-0.1	0.1	..	0.0	-0.1	-1.2	..
	산업생산 ¹⁾ (전기비, %)	-1.1	-1.2	-1.1	..	0.1	-1.3	0.6	..
	제조업PMI ²⁾ (기준=50)	47.1	48.2	44.7	43.2	43.4	42.7	43.5	43.4
	실업률 ¹⁾ (%)	6.6	6.6	6.5	..	6.4	6.5	6.4	..
	수출 ¹⁾³⁾ (전기비, %)	0.5	-1.7	-1.9	..	-0.8	-1.7	1.6	..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0.2	3.2	4.8	..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1.2	2.4	0.5	..	-0.6	2.2	0.2	..
	산업생산 ¹⁾ (전기비, %)	-1.7	-1.8	1.4	..	2.4	-1.8	-0.7	..
	제조업PMI ²⁾ (기준=50)	49.5	48.6	50.0	49.2	49.8	49.6	49.6	48.5
	수출 ¹⁾ (전기비, %)	0.8	-6.1	2.0	..	3.4	1.7	-1.7	..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2.9	4.5	6.3	4.9	-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2.7	5.8	10.7	4.2	3.1	2.5	4.6	5.5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8	3.0	4.5	4.2	4.4	3.7	4.5	4.5
	제조업PMI ²⁾ (기준=50)	48.1	51.5	49.0	49.7	49.0	49.3	49.7	50.2
	수출(전년동기비, %)	-8.3	-1.8	-4.8	-9.8	-12.3	-14.3	-8.7	-6.2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0.0	-2.2	-2.6	..	-3.3	-3.8

주: 1) 계절조정 기준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3.5월	6월	7월	8.23일	9월	10.18일
전세계 MSCI ¹⁾		646.4	682.8	707.1	675.5	656.8	655.8
- 선진국		2,800.6	2,966.7	3,064.3	2,937.7	2,853.2	2,851.9
- 신흥시장국		958.5	989.5	1,046.9	970.2	952.8	943.1
VIX ¹⁾		17.9	13.6	13.6	16.0	17.5	19.2
환율 ¹⁾	달러인덱스	104.3	102.9	101.9	103.4	106.2	106.6
	신흥시장국 ²⁾	49.6	49.1	48.9	48.2	47.0	46.3
	중국 ³⁾	7.11	7.27	7.15	7.29	7.30	7.32
국제금리 ¹⁾⁴⁾ (%)	미국	3.64	3.84	3.96	4.19	4.57	4.91
	독일	2.28	2.39	2.49	2.52	2.84	2.92
CDS프리미엄 ¹⁾ (bp)	신흥시장국	246.8	213.4	191.0	210.0	226.2	240.8
	중국	67.0	60.1	53.4	79.2	82.5	82.7
	한국	39.1	32.1	25.7	33.7	34.4	39.6
유가 ¹⁾⁵⁾ (달러/배럴)	WTI	68.1	70.6	81.8	79.5	90.8	88.3
	Brent	72.8	75.0	85.6	84.1	96.3	93.1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월중, 억달러)		122.5	60.3	100.5	59.0 ⁶⁾	-39.5	-90.7 ⁷⁾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미 달러화 대비
 4) 10년물 기준 5) 현물 기준 6) 8.3~8.23일 기준
 7) 9.28~10.11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낮은 실업률과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1	2022	22.4/4	23.1/4	2/4	3/4	23.7월	8월	9월
GDP 성장률 ¹⁾	4.3	2.6	-0.3	0.3	0.6	..	-	-	-
(민간소비)	3.6	4.1	-0.5	0.6	-0.1	..	-	-	-
(설비투자)	9.3	-0.9	2.4	-5.0	0.5	..	-	-	-
(건설투자)	-1.6	-2.8	1.3	1.3	-0.8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5.8	-0.3	-1.4	1.1	-0.3	..	-3.3	-0.3	..
설비투자지수 ²⁾	9.6	3.3	-0.2	-8.8	1.3	..	-8.9	3.6	..
건설기성액 ²⁾	-6.7	2.7	4.9	4.6	-0.8	..	0.8	4.4	..
수출(통관) ³⁾	25.7	6.1	-10.0	-12.7	-12.0	-9.7	-16.1	-8.1	-4.4
- 일평균 ³⁾	(25.7)	(6.3)	(-10.6)	(-16.0)	(-10.1)	(-9.0)	(-16.1)	(-8.1)	(-2.1)
제조업생산지수 ²⁾	8.4	1.4	-6.4	-0.9	3.3	..	-2.1	5.6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5.0	6.7	0.2	1.2	-0.3	..	0.3	0.3	..
소비자심리지수 ⁴⁾	103.4	95.7	88.6	91.0	97.9	102.0	103.2	103.1	99.7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92	81	72	66	72	69	72	67	68
취업자수 증감 ³⁾⁴⁾	36.9	81.6	60.4	39.7	34.6	26.3	21.1	26.8	30.9
고용률(원계열)	60.5	62.1	62.3	61.2	63.2	63.2	63.2	63.1	63.2
실업률(원계열)	3.7	2.9	2.6	3.2	2.7	2.3	2.7	2.0	2.3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물 가]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9월중 상승률이 3.7%로 전월보다 높아졌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9월중 3.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근원물가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기초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파급 영향 지속 등으로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22.4/4	23.1/4	2/4	3/4	23.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¹⁾	5.3 (0.4)	4.7 (1.1)	3.2 (0.6)	3.1 (1.0)	2.3 (0.1)	3.4 (1.0)	3.7 (0.6)
▪ 농축수산물	1.9	1.7	0.3	2.0	-0.5	2.7	3.7
▪ 공업제품	6.1	4.7	1.3	2.0	0.0	2.6	3.4
(석유류)	7.6	-4.1	-20.0	-14.5	-25.9	-11.0	-4.9
(석유류 제외)	5.9	6.1	5.3	4.9	4.9	4.9	4.8
▪ 전기·수도·가스	23.1	28.4	24.3	20.4	21.1	21.1	19.1
▪ 서비스	4.1	3.8	3.6	3.0	3.1	3.0	2.9
(공공서비스)	0.8	1.0	1.0	1.6	1.2	1.7	1.8
(개인서비스)	6.2	5.8	5.6	4.4	4.7	4.3	4.2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4.2	4.0	3.8	3.3	3.3	3.3	3.3
(관리물가 ²⁾ 제외)	5.0	4.7	4.3	3.6	3.7	3.6	3.5
▪ 농산물·석유류 제외	4.8	4.9	4.3	3.9	3.9	3.9	3.8
기대인플레이션율 ³⁾	4.1	3.9	3.6	3.3	3.3	3.3	3.3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은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다.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다.

국내금융지표

	23.5월	6월	7월	8.23일	9월	10.18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3.46	3.66	3.68	3.77	3.88	4.03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53	3.68	3.76	3.92	4.03	4.29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3.53	3.55	3.58	3.57	3.63	3.63
CP금리 ¹⁾²⁾ (91일물, %)	4.01	4.02	4.03	4.03	4.08	4.20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4.25	4.46	4.47	4.53	4.65	4.83
(3년, BBB-, %)	10.64	10.85	10.87	10.95	11.06	11.23
KOSPI ¹⁾	2,577	2,564	2,633	2,506	2,465	2,463
원/달러 환율 ¹⁾	1,327	1,318	1,275	1,340	1,349	1,350
원/100엔 환율 ¹⁾	951	911	900	920	905	902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4.2	-1.7	0.8	-1.6 ⁴⁾	-2.3	-1.3 ⁵⁾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8.1~23일중 5) 10.1~18일중						

-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22.4/4	23.1/4	2/4	3/4	23.6월	7월	8월	9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14.9	19.0	20.8	28.2	5.5	8.7	8.2	11.3
▪ 대기업	9.7	7.6	8.9	11.6	2.4	3.8	2.9	4.9
▪ 중소기업	5.2	11.3	11.9	16.6	3.1	4.9	5.2	6.4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1.4	-8.1	12.3	17.6	5.8	5.9	6.9	4.9
▪ 주택담보대출 ¹⁾	5.3	2.0	14.0	19.0	6.9	5.9	7.0	6.1
▪ 기타대출 ²⁾	-6.8	-10.0	-1.7	-1.4	-1.2	-0.0	-0.1	-1.3
주택 매매가격 ³⁾ (%)	-4.1	-3.4	-0.7	0.4	-0.1	0.0	0.2	0.3
▪ 수도권 ³⁾⁴⁾	-5.3	-4.1	-0.6	0.9	0.0	0.2	0.3	0.4
(서울) ³⁾	-4.1	-2.6	-0.4	0.8	0.0	0.1	0.3	0.3
▪ 지방 ³⁾⁵⁾	-3.0	-2.7	-0.8	0.0	-0.1	-0.1	0.0	0.1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정책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